



보도시점 2023. 10. 24.(화) 12시 배포 2023. 10. 23.(월) 16:00

탄녹위, 제주도와 탄소중립·녹색성장 추진방안 모색

- 환경 자산의 보물섬, 제주에서 제4회 지자체 탄소중립 포럼 개최
-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점 토의

□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공동위원장 : 한덕수 국무총리,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, 이하 “탄녹위”)는 ‘제4회 지자체 탄소중립·녹색성장 권역별 포럼 (이하 “권역별 포럼”)’을 10월 24일(화)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ICC Jeju 삼다홀에서 개최했다.

■ **일시/장소:** '23.10.24(화) 10:00~12:00 / ICC Jeju 삼다홀(서귀포시 소재)

■ **주 제:**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

■ **참 석:**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, 오영훈 제주도지사, 지역전문가 등 100여 명

■ **주 최:**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
■ **주 관:** 제주특별자치도

○ 이번 권역별 포럼*은 탄소중립·녹색성과 관련된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공유·소통하며,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

* (권역별 포럼) 전남(6월), 서울(8월), 경북(9월), 제주(10월), 충남(11월)

□ 포럼은 ‘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’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세션 순으로 진행됐으며, 분산에너지에 대한 지역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.

○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△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, △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역 비전과 과제, △분산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방안, △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, △에너지 디지털 라이제이션의 역할과 도전과제가 발표됐다.

- 제주특별자치도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은 “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(19.2%)과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(9.9%) 그리고 출력제어 해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제주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될 수 있다”고 주장했다.
 - 전력거래소 김영환 제주본부장은 “재생에너지 초과 발전을 흡수하기 위한 대용량 ESS(에너지저장장치) 순차적 설치, 수소터빈 도입 그리고 송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제주도가 탄소중립 도시로 가는 길”이라고 말했다.
 - 충남대학교 김승완 교수는 “제주도는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지역으로 진화해야 한다”며 “출력제어 해결은 사업자만의 미션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관심과 협력에 달려있다”는 의견을 제시했다.
 -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김도엽 과장은 “분산에너지원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전력을 생산, 소비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깨끗하고 저렴하다”면서 “디지털화는 분산에너지원을 전력망의 가치 높은 자산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”라고 설명했다.
- 토론세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탄녹위, 제주대학교,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,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가들이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탄소중립 추진전략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.
- 탄녹위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“국가의 탄소중립 목표가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지역”이며 “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- 특히 “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및 수소산업 활성화 노력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선도적 사례이며 글로벌 리더,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”라며 “탄녹위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전적인 탄소중립 정책들이 훌륭한 지역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덧붙였다.

담당부서	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포용전환국 공정전환과	책임자	과 장 정광영 (044-200-1937)
		담당자	사무관 김경탁 (044-200-1938)
			사무관 진소형 (044-200-1939)

1 포럼개요

- (주제)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
- (일시/장소) 10. 24.(화) 10:00~12:00 / ICC Jeju 삼다홀(서귀포시 소재)
- (참석) 약 100명(탄녹위원, 제주도 및 제주연구원 관계자, 지역전문가 등)
 ※ 주요 참석자 : 탄녹위원장, 제주도지사, 지역 전문가 등
- (주요내용) 주제발표 및 토론(탄녹위원, 제주도, 분산에너지 분야 전문가 참여)
- (주최)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※ 제주도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(10.23.~25.) 연계

2 포럼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	
10:00~10:15 (15')	개회식(3')	국민의례, 홍보영상 상영, 내빈 소개 등 *사회자(전문 아나운서)	
	개회사(5')	김상협 탄녹위 위원장	
	환영사 및 축사(7')	환영사(오영훈 제주지사), 영상축사(위성곤 국회의원)	
10:15~10:20 (5')	기념촬영	주요내빈 및 발표자·패널 기념촬영	
10:20~11:15 (55')	주제발표	김희집 대표 컨설턴트(에너아이디어,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위원)(5')	
	발표 세션	지역	①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(10') (제주특별자치도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)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역 비전과 과제(10') (전력거래소 김영환 제주본부장)
		중앙	③ 분산에너지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방안(10') (서울과학기술대 황우현 교수) ④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(10') (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) ⑤ 에너지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역할과 도전과제(10') (디지털플랫폼위원회 김도엽 과장(전 IEA 애널리스트))
	토론 세션	(좌장)	신현석 위원장(탄녹위 공정전환분과위)
		(패널)	오홍식 위원장(제주특별자치도 탄녹위), 김범석 교수(제주대학교), 김인환 박사(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), 마용선 연구위원(에너지경제연구원)
12:00	폐회	마무리 말씀(김상협 위원장)	